

#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rogram  
for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in Dating Relationship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재림\*\*

교수 옥선화

석사과정 이경희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Lee, Jae-Rim

Professor : Ok, Sun-Wha

Master's Course Student : Lee, Kyung-Hee

## 〈Abstract〉

An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and evaluated to improve college students' understanding on gender differences in dating relationships. This program was design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of students' preference on subjects concerned with dating and premarital education. The program consisted of three sessions which were 'Are men & women different?', 'How are they different?', and 'How can we cope with the differences?'. Questionnaires and pre/post interviews were adopted for evaluation of the program.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as well as the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recognizing the existence of gender differences, understanding gender differences, and improving skills to maintain intimacy in dating relationships.

▲ 주요어(key words) : 이성교제(dating), 남녀차이(gender difference),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family life education)

## I. 서 론

서구에서 18세기 후반에 등장한 낭만적 사랑(Giddens, 1992: 78)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성교제는 특히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혼남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성교제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는 단순히 오락적인 기능

을 담당하거나 결혼 전에 경험해야 할 과정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성교제의 기능(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 100-101) 중 오락적 기능이나 배우자 선택의 기능에 비해 사회화의 기능이나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인격도약의 기능 등은 덜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교제를 통하여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 역할,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성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자아개념을 획득한다(정현숙·유계숙, 2001: 254)는 점 역시 이성교제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성교제는 성인으로서의 사회화 과정의 일환이며, 장래의 결혼생활을 위한 기초적이고 총체적인 이성과의 생활훈련인 것이다(옥선화·정민자·고선주, 2000: 43).

\* 이 연구는 2002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주저자 : 이재림 (E-mail : jamielee@snu.ac.kr)

이렇듯 이성교제는 개인의 발달과 배우자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성교제의 의미와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미혼남녀에 대한 이성교제 교육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이성교제를 결혼전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커플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 우정과 관계에 대한 책임감 발달, 커플간 친밀감 증진, 문제해결 및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Stahmann & Salts, 1993).

한편 이성교제를 시작한 미혼남녀는 의사소통의 문제, 성행동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남녀간의 차이이다. 이성교제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남녀차이는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의 차이에서부터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남녀차이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원인, 양육방식의 영향, 교사 및 대중매체의 영향 등 다각도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녀차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여 남녀차이에 대한 서적이 인기를 모으고 남녀차이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등장하였다<sup>1)</sup>. 이렇게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가 중요하게 지적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성관계는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남녀차이가 이성교제에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성교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남녀차이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녀차이의 내용을 이해하고, 남녀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대체로 이성교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세부적인 주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참석자들은 이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녀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익힘으로써 이성관계에서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신과 상대방만의 문제라고 여겼던 부분이 보편적인 남녀차이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미래의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1) 1993년에 국내에 소개된 Gray(1992)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 교보문고 집계 2002년 5월 첫째주 주간 스테디셀러 4위, 베스트셀러 종합 8위를 차지(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SBS TV에서는 남녀 차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2001년 11월부터 남녀의 심리차이에 대한 토크쇼 「심심남녀」를 편성하였다.

때문이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자신과 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배우자선택 과정과 장래의 긍정적인 부부관계 유지에 보탬이 되는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프로그램 개발 배경

### 1.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대부분 나와 상대방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특히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원만한 이성교제나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자들과 상담가들이 지적해 온 내용이다. 그런데, 친밀한 남녀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사람의 차이 중에서 서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이며 중요한 원인은 성별차이인 남녀차이인 것이다.

남녀차이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생물학, 언어학, 사회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차이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는 주로 인지능력이나 인성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다. 남녀차이를 다룬 150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Maccoby와 Jacklin(1974)은 실제로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되는 네 가지의 남녀차이로 언어 능력, 시공간 능력, 수리 능력, 공격성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계속 입증되고 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일찍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 기술을 발달시키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읽기 이해와 언어 유창성 검사에서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남아는 시공간 능력 검사에서 여아보다 뛰어나며,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여아보다 산술적 추론 검사에서 더 우수하다. 한편, 공격성 차원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물리적·언어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한다(Shaffer, 1999: 490-491). Gilligan(1982)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는데, 남성의 도덕개념이 정의나 권리,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여성의 도덕개념은 티-인과의 관계에 민감한 상황의존적이고 문맥지향적임을 발견했다.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른 연구자는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관심과 가치관에 있다고 지적한다 (Stewart, 1973, 공미혜, 2001에서 채인용). 이러한 관심과 가치관의 차이는 이성교제나 부부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남녀차이는 남성은 성취, 여성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 Parrot과 Parrot(1995: 95-109)은 부인이 부부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과 이해 받는 것, 존중받는 것이며, 남편이 부부관계에서 바라는 것은 존경받는 것과 자율성을 갖는 것,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미혼남녀의 기대에서도 이러한 남녀차이가 나타난다. Cancian(1985), Shehan & Kammeyer, 1997: 131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성교제에서 친밀감과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지만, 남성들은 도구적인 도움이나 성적 행동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랑의 의미에도 남녀차이가 있는데 남성에게 사랑은 보다 적극적이고 충동적이며 성적이고 함께 활동을 즐기는 것인 반면에, 여성에게 사랑은 보다 신체적이고 친구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Schwartz & Scott, 1997: 89).

이성교제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영역에서도 남녀차이가 존재한다. 남녀의 의사소통 방식을 연구한 사회언어학자들은 남녀가 서로 다른 성 방언(genderlect)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남성은 말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데 비해 여성은 말의 속뜻을 생각하며, 남성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반면 여성은 공감과 위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Tannen, 1991).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여성은 문제에 대해 의논하자고 제안하는 편이고, 남성은 자신이 정서적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의논을 좋아하지 않는다(Cancian, 1985, Shehan & Kammeyer, 1997에서 재인용)고 한다.

이성교제를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남녀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남성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내면으로 움츠러들어<sup>2)</sup> 다른 사람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긴장이 해소된다. 반면에, 여성은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때 기분이 나아진다(Gray, 1992: 51-65; Parrot & Parrot, 1995: 106-107). 한편, 부부간의 다툼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에도 남녀별로 차이가 있다(Gottman & Silver, 1999: 56)는 지적이 있다. 남성은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자기변호를 하거나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영역의 남녀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남녀차이 중,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는 남녀의 능력이나 성역할 분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남녀차이는 단순한 달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호나 가치관의 차이, 행동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이다<sup>3)</sup>.

물론 남녀차이가 이성교제에서의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모든 남성이 동일하고 모든 여성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의미에서 남녀차이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하며, 수많은 이성교제에서 오해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명하다. 따라서 남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할 때 남녀차이를 인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며, 차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남녀차이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남녀차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친밀감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Parrot & Parrot, 1995: 93), 이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나, 여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 증진은 궁극적으로는 음양의 조화를 통한 남녀의 조화로운 삶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2. 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기존의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관련된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서 개별 주제를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단일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요구도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남녀 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204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8.3%, 여자가 41.7%였으며,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5.5%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3배 정도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성	집단	빈도(%)
학교	A대학교	66( 32.3)
	B대학교	52( 25.5)
	C대학교	86( 42.2)
	합계	204(100.0)
성별	남자	119( 58.3)
	여자	85( 41.7)
	합계	204(100.0)
계열	인문계	99( 49.7)
	자연계	82( 41.2)
	예체능계	18( 9.1)
	합계	199(100.0)
이성교제 경험유무	경험 있음	154( 75.5)
	경험 없음	50( 24.5)
	합계	204(100.0)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의사와 운영방식에 대한 요구도는 <표 2>와 같다.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참가의사는 높은 편으로, ‘가능한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58.9%를 차지하였다. ‘반드시 참가하고 싶다’와 ‘가능한 참가하

2) Gray(1992)는 이를 남성이 자신의 농굴로 들어간다고 표현하였다.

3)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남녀차이의 제한적 내용이 남녀간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논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

&lt;표 2&gt;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교육에 대한 요구

구분	항목	빈도(%)
참가의사	반드시 참가 희망	22( 10.9)
	가능한 참가 희망	119( 58.9)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음	56( 27.7)
	절대로 참가하고 싶지 않음	5( 2.5)
	합계	202(100.0)
희망 횟수	1회	29( 14.6)
	2회	45( 22.6)
	3회	65( 32.7)
	4회	23( 11.6)
	5회	18( 9.0)
	6회	5( 2.5)
	7회 이상	14( 7.0)
희망 1회당 시간	합계	199(100.0)
	60분 미만	15( 7.4)
	60분	38( 18.7)
	60분 초과~90분 미만	13( 6.4)
	90분	63( 31.0)
	100분	1( 0.5)
	120분	61( 30.0)
	120분 초과	12( 6.0)
희망 실시시기	합계	203(100.0)
	강의 내용으로	88( 43.6)
	평일 낮 공강시간	38( 18.8)
	평일 저녁	38( 18.8)
	토요일 오전	14( 6.9)
	토요일 오후	15( 7.4)
	일요일	6( 3.0)
희망 교육단위	기타	3( 1.5)
	합계	202(100.0)
	커플단위	28( 13.7)
	남녀별	14( 6.8)
	연령대별	34( 16.7)
	자유롭게 섞어서	126( 61.8)
희망 교육방법	기타	2( 1.0)
	합계	204(100.0)
	강의 중심	13( 6.4)
	소집단 토론 중심	30( 14.7)
	검사지 등 분석 중심	6( 2.9)
	기술습득 중심	10( 4.9)
희망 교육방법	사례연구 중심	24( 11.8)
	위의 방법을 조합한 형식	119( 58.3)
	강의+소집단 토론	13(10.9)
	강의+분석	4( 3.4)
	강의+기술습득	5( 4.2)
	강의+사례연구	23(19.3)
	소집단토론+분석	6( 5.0)
	소집단토론+기술습득	15(12.6)
	소집단토론+사례연구	24(20.2)
	분석+기술습득	6( 5.0)
희망 교육방법	분석+사례연구	16(13.4)
	기술습득+사례연구	7( 5.9)
	합계	119(99.9)
	기타	2( 1.0)
	합계	204(100.0)

고 싶다'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비율을 합하면 69.8%로서 이 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의 총 회수는 3회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1회당 교육 시간은 90분(31.0%)과 120분(30.0%)을 희망한 응답자가 많았다.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는 '강의 내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자가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교육단위는 '남녀를 자유롭게 섞어서(61.8%)'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방법은 몇 가지 교육방법을 조합하는 것을 희망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는데, 조합의 형식으로는 소집단 토론과 사례연구를 조합한 형식과 강의와 사례연구를 조합한 형식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20.2%와 19.3%로 많았다.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의 내용으로 응답자들이 희망한 주제는 <표 3>과 같다. 응답자들에게 희망하는 주제 2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분석 결과, 1순위로 희망한 주제는 남녀차이의 이해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과 유지(19.1%), 결혼관 확립(18.1%), 의사소통 방법(13.7%), 성교육(7.8%)과 성격차이의 이해(7.8%)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희망한 주제 역시 남녀차이의 이해를 선택한 응답자가 2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격차이의 이해(16.7%), 성교육(16.3%), 의사소통 방법(14.8%),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과 유지(13.3%), 결혼관 확립(12.3%)의 순이었다. 이러한 요구도 분석 결과를 통해, 남녀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로 '남녀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lt;표 3&gt; 이성교제 및 결혼준비 교육 관련 희망 주제

내용	1순위	2순위
결혼관 확립	37( 18.1)	25( 12.3)
남녀차이의 이해	65( 31.9)	52( 25.6)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과 유지	39( 19.1)	27( 13.3)
성격차이의 이해	16( 7.8)	34( 16.7)
성교육	16( 7.8)	33( 16.3)
의사소통 방법	28( 13.7)	30( 14.8)
기타	3( 1.5)	2( 1.0)
합계	204(100.0)	203(100.0)

### III.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1. 프로그램 목표 및 구성

이 프로그램은 요구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희망한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lt;표 4&gt; 1차시 :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목표	① 참석자들간의 라포를 형성한다 ② 남녀차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③ 남녀차이의 원인을 이해한다	
진행	내용	준비물
도입 (15분)	1. 이름표와 워크북 배포 및 진행자 소개 2. <그 남자의 진실, 그 여자의 진실>이 뭐예요? 프로그램 개요 소개	이름표 워크북
강의 및 활동 (1시간 20분)	1. <활동 하나> 풍선게임 : 제시된 형용사를 이용하여 풍선을 띠기며 돌아가며 자기소개 하기 2. 남녀차이를 왜 알아야 하나요?: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 3. 남녀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녀차이의 존재 ① 남녀차이가 나타나는 영화의 장면을 함께 봅시다 ② 풍선게임에서 사용한 형용사를 다시 봅시다 ③ 남녀차이요? 이런 것이 떠올라요 : 남녀차이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 나누기 4.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요?: 남녀차이의 원인 ① <활동 둘> 두뇌 회로 검사 ② 남녀차이의 원인에 대한 생각 나누기 ③ 남녀차이의 원인 강의: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	워크북 풍선 프로젝터 스크린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노트북 필기도구 라디오 음악 CD
종결 및 과제 (15분)	1. 혼성성관계에 대한 생각과 경험 적어 보기 (3차시 준비용) 2. 내용 정리 및 생각해 올 문제 부과	기재 용지 필기도구

&lt;표 5&gt; 2차시 : 이성교제를 할 때 남자와 여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목표	① 이성교제에 대해 남녀가 기대하고 중요시하는 부분의 차이를 이해한다 ② 이성교제에서 남녀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③ 이성교제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의 남녀차이를 이해한다	
진행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2차시의 목표와 내용 소개	명찰
강의 및 활동 (1시간 35분)	1. <활동 셋> 이런 이성교제를 위해 ① 워크북에 기록하고 성별 응답 결과보기 ② 소집단 나눔 : 팀별로 예시상황 나누기 ③ 전체에게 응답 결과와 나눔 내용 발표하기 2. 남녀차이 하나: 남자가 원하는 것, 여자가 원하는 것 (비디오/사례/강의) ① 성취가 중요한 남자, 관계가 중요한 여자 ② 존경받고 싶은 남자, 존중받고 싶은 여자 ③ 같이 활동하고 싶은 남자, 대화하고 싶은 여자 3. 남녀차이 둘: 남자의 의사소통, 여자의 의사소통 (비디오/사례/강의) 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암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②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암시를 사용하는 여자 4. 남녀차이 셋: 남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여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비디오/사례/강의) ① 동굴로 들어가는 남자 ② 이야기하고 이해 받고 싶어하는 여자	워크북 필기도구 <활동 셋> 응답결과 용지 라디오 음악 CD 프로젝터 스크린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종결 및 과제 (10분)	내용 정리 및 생각해 올 문제 부과	

&lt;표 6&gt; 3차시 :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어떻게 접근할까?

목표	① 이성교제에서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남녀간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② 이성교제에서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③ 이성교제에서의 성 의식과 성적 행동의 남녀차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진행	내용	준비물
도입 (5분)	3차시의 목표와 내용 소개	명찰
강의 및 활동 (1시간 35분)	1. <활동 넷> 그 남자의 진실, 그 여자의 진실 ① 워크북에 기록하기 ② 소집단 나눔 : 다른 참가자와 긍정적인 응답에 대한 의견 나누기 2. 남자에게는 이렇게 (비디오/사례/강의) 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나-메시지 사용하기 ②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주기 ③ 공동의 취미 만들기 ④ 남자가 좋아하는 칭찬 3. 남자에게 주의해야 할 말 4. 여자에게는 이렇게 (비디오/사례/강의) ① 적극적 경청하기 ② 소중한 사람임을 표현하기 ③ 데이트 계획하기 ④ 여자가 좋아하는 칭찬 5. <활동 넷> 채점 및 의사소통 기술 연습 5. 성 의식과 성적 행동의 남녀 차이 (비디오/사례/강의) ① 성 의식과 성적 행동의 남녀 차이 ② 혼전성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분석 ③ 자율적인 판단에 근거한 성 의식 형성하기	프로젝터 스크린 비디오 비디오 테이프 워크북 필기도구 라디오 음악 CD
종결 (10분)	남녀차이로 조화를 이루기 사랑은 배우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검토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한 후, 각 차시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조직하고,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를 인정하고, 남녀차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남녀차이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피교육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목을 설정하고자 하였는데, 남녀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과 욕구가 있으며 그 다름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 남자의 진실, 그 여자의 진실』로 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구성되었다. 이는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참가가 자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출석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과정이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주 1회 실시되며 프로그램 1회의 소요시간 역시 요구도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시간 50분으로 하였다. 각 차시의 목표는 프로그램 전체 목표와 유기적인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설정된

차시별 제목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시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제목 하에 남녀차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남녀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성교제할 때 남자와 여자,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제목의 2차시의 목표는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녀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3차시의 제목은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어떻게 접근할까?’로 남녀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차시의 세부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표 5>,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몇 가지 방식을 조합한 형태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으므로, 이 프로그램은 소집단 활동과 강의, 사례연구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특히 가족생활교육 교수법에 대한 접근법들은 소집단 활동을 강조하는데, Sommerville (1972: 172, Arcus & Thomas, 1993에서 재인용)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소집단의 상호작용을 가족생활교육에서의 핵심적 접근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Gross(1985: 22, Arcus & Thomas, 1993에서 재인용)은 모든 가족생활교육의 본질이 소집단 토론임

을 지적하면서, 가족생활교육은 교육자와 참여자들이 집단에 기여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양방향 학습의 특징을 지닌다고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남녀혼성 집단을 대상으로, 소집단 활동에 중점을 둘 것으로써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2. 프로그램 실시

A대학교 학부과정 교양과목인 <결혼과 가족>을 수강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주제를 알리고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신청자는 총 55명이었는데, 소집단 단위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프로그램의 참가인원은 20명 내외가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참가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즉 55명의 신청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시간을 제시하고 본인에게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참가할 인원을 배정하였다. 참가 인원을 배정할 때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도록 구성한 결과, 화요일 오전에 실시된 프로그램 참가자가 22명, 수요일 저녁 프로그램 참가자가 19명, 목요일 오전 프로그램 참가자가 21명이었다. 이 중 화요일 참가자 1명과 수요일 참가자 1명이 조기 취업으로 프로그램의 3차시에 참석하지 못하여 최종 참가자는 총 53명이었다.

<표 7>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 (N=53)

특성	집단	빈도(%)
성별	남자	27(50.9)
	여자	26(49.1)
계열	인문계	17(32.1)
	자연계	22(41.5)
	예체능계	14(26.4)
연령	19세 이하	6(11.3)
	20세	18(34.0)
	21세	9(17.0)
	22세	5( 9.4)
	23세	4( 7.5)
	24세	5( 9.4)
	25세	3( 5.7)
	26세 이상	3( 5.7)
	평균	21.5세
이성교제	현재 교제 중	13(24.5)
	경험 있으나 현재 교제 안 함	16(30.2)
	경험 없음	24(45.3)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27명(50.9%), 여자가 26명(49.1%)으로 거의 유사하였고, 계열은 자연계가 41.5%, 인문계 32.1%, 예체능계 26.4%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20세가 34.0%로 가장 많았고 평균 21.5세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 여부는 교제 경험이 없는 참가자가

45.3%, 교제 경험이 있으나 현재 교제하지 않는 참가자가 30.2%, 현재 교제 중인 참가자가 24.5%로, 교제 경험 유무로 볼 때 유경험자가 54.7%, 무경험자가 45.3%였다.

프로그램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일정과 규칙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3회의 교육은 최대한 내용과 방법이 동일하게 이루어도록 하였다. 실시 장소는 대학교 강의실이었는데, 자리 배치는 활동 내용에 적합하도록 원형 배치, 텁별 배치 등 각 차시별로 차이를 두었다.

교육방법은 강의와 활동을 병행하였다. 강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관련된 장면을 함께 보거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고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였으며, 강의 중간에 참가자의 의견을 묻거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양방향적인 강의가 되도록 하였다. 비디오 자료는 비디오로 출시된 영화나 방영된 드라마들을 검토한 후, 내용과 관련된 장면을 2~5분 길이로 프로그램의 순서에 맞추어 편집하여 사용하였다<sup>4)</sup>. 활동은 워크북과 유인물, 풍선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였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경음악을 준비하는 등 집단 내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강의 및 활동을 담당한 주진행자 1인과 소집단 활동 및 교육매체 작동을 담당한 보조진행자 1인이 맡았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가족생활교육자가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데(Arcus & Thomas, 1993), 가족생활 교육자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반응하고 전형적인 역할과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성이 있다(Stahmann & Salts, 1993)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남녀차이를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경우 프로그램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남녀 참가자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었다.

## 3. 프로그램 평가

이 프로그램의 평가는 질문지와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질문지 조사와 실험을 사용한 반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각과 경험이 잠재적인 가능성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선되고 개정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가 실시된 적은 거의 없었다(Arcus & Thomas, 1993).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미와 이해를 연구목적으로 상정하는 질적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기 어려운 대안적 해석과 관점을 제공(김영천, 1997)해

4)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영화와 드라마는 '미술관 옆 동물원', '소살리토' 등 총 12편이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한 평가 방법과 면접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병행하였다. 질문지를 통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자 하였으며, 면접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으며, 프로그램이 각자의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질문지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평가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종료 약 1주일 후인 2001년 12월 11일에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참가자 개인에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추천 의사와 비중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활동을 질문하였다.

면접을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 면접과 사후 면접을 하였다. 사전면접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집단에서 각각 남녀 1명을 선정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면접 기간은 프로그램 실시 이전인 200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 사이였다. 사전면접에서는 면접대상자가 이성교제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경험한 남녀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남녀차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남녀차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도 이루어졌다. 사전 면접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후면접과의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면접대상자에게는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요구도 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후면접은 프로그램 종료 후인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전면접 참가자와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사후면접의 내용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도움이 된 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등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문지와 면접을 통한 이상의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에 반영되었다.

#### IV. 프로그램 평가 결과

##### 1. 질문지를 통한 평가

프로그램의 평가에 앞서,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를 얼마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와 남녀차이의 이해수준은 어떠했는지를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느낀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 필요성은 평균 4.13

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프로그램 참가 이전의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평균 3.2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프로그램 참가 이전에 생각한 남녀차이에 대한 이해 필요성에서 남녀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p<.05$ ).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을 더 높게 보고했는데, 이를 통해 참가자들 중 남학생이 이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을 더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프로그램 이전에 느낀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과 본인의 이해수준 (N=53)

항목	전체평균 (표준편차)	집단(빈도)	평균 (표준편차)	t
교육 전에 느낀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	4.13(.81)	남자(27) 여자(26)	4.37(.74) 3.88(.82)	2.27
교육 전 본인의 남녀차이 이해 수준	3.23(.87)	남자(27) 여자(26)	3.15(.91) 3.31(.84)	- .66

\*  $p < .05$

다음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1점부터 5점 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sup>5)</sup>. 우선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85점으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시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이성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남녀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2차시의 만족도가 평균 3.82점, 남녀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한 3차시의 만족도가 평균 3.81점으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남녀차이의 존재를 인식하고 남녀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고자 한 1차시의 만족도는 평균 3.43점이었다.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제시된 평가항목 중 교육진행자(평균 4.21점), 교육방법(평균 4.15점), 교육단위(평균 4.11점)에 대한 만족도가 4점을 넘어 높은 수준이었고 이어 참가인원(평균 3.81점), 소요시간(평균 3.38점), 교육장소(평균 3.23점), 횟수(평균 3.02점)에 대한 만족도의 순이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횟수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참가자 26명(49.1%)은 모두 횟수가 부족했다고 하였는데, 개선방안으로는 총 5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1명(84.0%)으로 가장 많았고, 4회가 3명(12.0%), 8회가 1명(4.0%)이었다.

5)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효과에 대한 참가요일별 참가자들의 집단간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나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가 요일과 관계없이 함께 분석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성교제 경험 여부별 참가자들의 집단간 차이는 워크북 활동 중 활동 하나에 대한 만족도( $p<.05$ )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lt;표 9&gt;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N=53)

평가 항목		평균(표준편차)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3.85(.69)
프로그램 내용	1차시에 대한 만족도	3.43(.67)
	2차시에 대한 만족도	3.82(.74)
	3차시에 대한 만족도	3.81(.86)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첫수에 대한 만족도	3.02(.97)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	3.38(.84)
	참가 인원수에 대한 만족도	3.81(.81)
	교육단위에 대한 만족도	4.11(.75)
	교육방법 전반에 대한 만족도	4.15(.77)
	강의에 대한 만족도	3.60(.66)
	비디오시청에 대한 만족도	3.94(.79)
	워크북 활동에 대한 만족도	3.71(.70)
	소집단 나눔에 대한 만족도	3.47(.89)
	교육장소에 대한 만족도	3.23(.95)
워크북 활동	교육진행자에 대한 만족도	4.21(.74)
	활동 하나에 대한 만족도	3.62(.80)
	활동 둘에 대한 만족도	3.40(.84)
	활동 셋에 대한 만족도	3.90(.67)
	활동 넷에 대한 만족도	3.94(.88)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요소 중 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교육방법의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비디오 시청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평균 3.94점), 다음으로 워크북(평균 3.71점), 강의(평균 3.60점)의 순이었으며, 소집단 나눔(평균 3.47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시간을 더 할애하기를 희망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표 10>을 보면 시간 할애를 희망한 활동으로 소집단 나눔을 선택한 참가자가 19명(37.3%)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기술 등 기술 습득을 선택한 참가자가 15명(29.4%), 비디오 시청 등 사례연구를 선택한 참가자가 11명(21.6%)이었다.

다음으로는 교육방법 중 만족도가 두 번째로 높은 워크북 활동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위한 활동인 <활동 넷: 그 남자의 진실, 그 여자의 진실>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성교제에서 남녀가 기대하고 중요시하는 부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 셋: 이런 이성교제를 원해>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3.90점으로 유사했다. 다음으로 라포 형성 및 남녀의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을 위한 <활동 하나: 풍선게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고, 남녀차이의 생물학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 둘: 두뇌 회로 검사>에 대한 만족도는 3.40점이었다.

&lt;표 10&gt; 시간 할애 추가를 희망하는 교육방법

교육방법	빈도(%)
강의	1( 2.0)
소집단 나눔	19( 37.3)
검사지 검사 등 분석	5( 9.8)
비디오 시청 등 사례연구	11( 21.6)
의사소통 기술 등 기술습득	15( 29.4)
합계	51(100.1)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프로그램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항목에 대해 도움이 된 정도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부터 ‘매우 도움이 되었다’까지 5점 척도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항목의 평균이 3.5점을 넘어 프로그램이 참가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 인식에 도움이 된 정도가 평균 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녀차이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 정도가 평균 4.00점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남녀차이의 존재여부 인식에 효과가 있었다(평균 3.87점)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의 성장(평균 3.85점)과 이성교제에서 남녀차이의 보편성 인식(3.77점)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이해(평균 3.71점)와 남성에 대한 이해(평균 3.63점)의 폭을 넓혔으며, 남녀차이 원인에 대한 이해(평균 3.51점) 증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lt;표 11&gt; 프로그램의 효과 (N=53)

평가 항목	평균(표준편차)
남녀차이 존재여부 인식	3.87(.56)
남녀차이 이해의 필요성 인식	4.02(.54)
남녀차이 원인에 대한 이해	3.51(.87)
남성에 대한 이해	3.63(.66)
여성에 대한 이해	3.71(.71)
남녀차이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	4.00(.84)
이성교제에서 남녀차이의 보편성 인식	3.77(.73)
자신의 성장	3.85(.53)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선후배에게 추천할 의사를 질문한 응답 결과는 <표 12>와 같다. 즉 프로그램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32명(6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반드시 추천하겠다고 답한 참가자도 14명(26.4%)으로, 프로그램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참가자가 전체의 86.8%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 12&gt; 프로그램 추천 의사 (N=53)

	절대 추천안함	추천안함	모르겠음	추천함	반드시 추천
빈도(%)	0(0.0)	1(1.9)	6(11.3)	32(60.4)	14(26.4)

## 2. 면접을 통한 평가

사전면접과 사후면접은 각 참가요일별로 남녀 1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 개인적 특징은 <표 13>과 같다.

&lt;표 13&gt; 면접대상자의 개인적 특징

참가요일	이름	성별	연령	단과대학	이성교제 경험
화요일	장경진	남	22	공과대학	경험 있으나 현재 안 함
	양혜은	여	22	법과대학	첫 번째 교제 중
수요일	이정섭	남	26	농과대학	경험 있으나 현재 안 함
	강현주	여	22	공과대학	두 번째 교제 중
목요일	김상철	남	22	경영대학	교제경험 없음
	한선아	여	21	음악대학	첫 번째 교제 중

\* 면접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음

사전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 3명은 공통적으로 이성관계에서 남녀차이를 크게 느껴 왔다고 이야기하였고, 여학생들 역시 이성교제에서 두 사람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성격의 차이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면접을 실시한 결과,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성교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남녀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남녀차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한 여학생의 이야기이다.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자체가 달랐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우선시 되는 일이 있고 좀 처지는 일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친구는 학생운동을 하는 친군데요. 확실히 학생운동이라는 게 그 성격 자체로서 일단 거기에 몰두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 못할 정도의 어떤.. 집중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게 그 친구는 있었고. 그 만큼 저한테 소홀해지니까 그거를 제가. 그거를 못 견딘 거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러면 나 진짜 힘들다'라고 얘길 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제일 컸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없었던 거죠. (강현주, 사전면접)

진행방식이, 그러니까.. 영화보고 얘기하고 워크북 가지고 같이 하는 건데 이해가 되게 쉬웠던 거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인터뷰 할 때(사전면접)는 그런 거 성격차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 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남녀차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게 공통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 갈라지니까 남녀차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강현주, 사후면접)

면접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으로 '재미있었다', '구체적이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였다. 특히 비디오 시청이나 사례 소개가 재미있으면서도 생생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하였고, 남녀차이에 대한 접근방식도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저는 예상은 그냥. 되게.. 예상하는 거는.. 그냥 지식적. 지식적으로.. 그냥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는 뭐 몸도 다르고 뭐 이렇게 성향도 다르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한 번 보여주고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서 보니까 뭐 풍선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 같은 거를, 직접 사안에 맞는 영화 같은 거를 보여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이해될 수 있게..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례를 말해주면서 영화를 딱 보여주니까 그게 딱 이해가 되더라구요. 제가 그 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실감할 수 있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 그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저는 다 재밌었어요. 어. 너무 짧았었구. 너무 재미있어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정섭, 사후면접)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라포형성을 위한 <활동 하나 : 풍선 게임>과 실질적인 대화기법을 연습할 수 있었던 <활동 넷> : 그 남자의 진실, 그 여자의 진실>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특히 남학생은 3명 모두 풍선게임이 분위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활동 넷>은 이성교제에서 자주 접하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녀학생 모두 공감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풍선을 치고있는 거는 집중력을 높여주고.. 긴장감을 없애주고.. 그런 거.. 그거 아니면 되게 뻘쭘했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몰입이 된다고 그럴까?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되는 거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장경진, 사후면접)

면접대상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동안 자신이 이성교제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상황이 떠올랐다는 언급을 많이 하였다. 이렇게 과거에 실제로 겪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남녀차이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거나, 자신의 대처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기분이 나빴을 때나..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봤을 때 제 남자친구가 문제 한 개 차이로

안 됐거든요.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펑펑 운다거나 아니면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일단 저도 떨어져서 일단 경황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얘랑 사귀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불안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오는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거.. 그런 생각을 했었고. 컴퓨터 할 때 누가 옆에서 말시키면 절대로 못 알아듣고.. 아니면은 그렇게 들려서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 듣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좀.. 정말 들려서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 듣더라구요. 내가 조금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다고.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해야 알아듣는구나'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게 좀 효과적이다'라는.. (양혜은, 사후면접)

그 프로그램 들으면서 기억이 난 건데요, 그 때 듣고 알았는데.. 어떤 여자애가 자기 집안 얘기를 하더라구요. 자기 그런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요. 처음부터 그런 얘길 하니까 그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길 할까.. 아. 그 때 그 애가 너무 진지해가지구 기억에 남는데.. 그 때 그러셨잖아요. 여자들이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어려운 점? 단점? 뭐 그런 것들 얘기한다고.. 또 다른 거는.. (여자들은) 말로 설명을 잘 못 해 가지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거 같아요. 말로 설명 안 되는데 자꾸만 뭔가 이렇게 바라는 데 아무 말도 안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찌라는 건지.. 그때 가지고 막 사람 헛갈리게 만들고.. 좀 이상하더라구요. 아니면 자기 요구하는 바를 말하면서.. 꽃이 필요하면 꽃을 사달라고 그러던지. 그렇게 왜 몰라 주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꽃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머뭇거리면 짜증나 가지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김상철, 사후면접)

면접대상자들은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대화방법을 이성과의 관계에 의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이러한 대화기법을 사용해 보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지속적으로 연습하게 되었고 이를 친밀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좀 써먹어 봤더니 되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남자친구가) '뭐 나 시험 너무 많고 바쁘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힘들어서 어떡해' 그냥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너는 뭐 잘할 수 있을까. 뭐 똑똑하니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한선아, 사후면접)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교제중인 이성친구나 친구, 선후배와 대화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을 대화주제로 자주 꺼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성의 친구에게 학습한 내용을 알려 주기도 하고, 이성의 친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고 하였다고 한다. 특히 현재 교제중인 면접대상자들은 이성친구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이해시키는데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듣고 나오면 막.. 오늘은 뭘 시킬까.. 어제 두 나와서.. 교육체계에 들어가서 남자친구 막 가르쳐요.. '활동에서.. 오른쪽 거. 왼쪽 거 해봐' 막 이러면서..

(웃음) 한 시간동안 어찌네 저찌네 하고.. 이성친구 있으면 같이 진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편찮을 거 같애요. (양혜은, 사후면접)

한편, 면접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자신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이성교제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여학생은 3명 모두 자신이 이성친구로부터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때 먼저 이해를 해주고 얘기를 하기를 바라는 게 여자가 말하는 입장이라는 걸 들었는데... 저도 되게 그게 심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를 한다기보다 일단은 '널 이해해. 그래 너가 맞아' 그런 말을 되게 필요한 걸 느꼈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들으니까 '아 맞아 저게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인 거 같애'라는 걸 알았어요. (강현주, 사후면접)

한편, 사후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참가는 면접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목표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양혜은과 이정섭은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다른 참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양혜은은 다른 참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성교제를 생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고,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이정섭은 한 여자친구와 오래 사귄 다른 참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주장이 강한 성격이어서 이성교제를 오래 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성했다고 하였다.

제가 성격이 좀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강하다는 게 주장이 좀 세고, 막 남들이 말하는 거 잘 안 듣고 그런 스타일인데, 같이 얘기했던 진우씨는 저랑 완전히 다른 성격이시더라구요. 좀 그런 분 얘길 뚝 들어보니까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같은 남자.. 여자만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저렇게도 여자친구랑 오래 사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저런 건 좀 배워야겠다.. 이런 거.. 여자만 이해한 거 같지 않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이정섭, 사후면접)

또한, 여자형제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한 김상철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누나와 여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김상철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습득한 대화방법을 적용해 보았다고 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 여동생이 있는데 누나하고 여동생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 같애요. 제가 이렇게 상당히 좀 성격이 좀 직선적이어서 (누나와 여동생이) 상처를 많이 받더라구요. 나중엔 저랑 대화를 안 할려고 그래요. 지난 번 누나 생일에도.. 제가.. 근데 솔직히 평상시에 대화하는 시간 없으니까

그 때 형제끼리 궁금한 거 얘기할 때는 그 때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엔 계속 까대거든요. 재미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막 이렇게 까대는데.. 그래서 평소 같으면 또 성질 내고 저도 기분 나쁘고 싸운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지난 번에는 누나가 취직 땜에 힘든데 편들어 주니까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김상철, 사후면접)

마지막으로 사후면접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프로그램이 부수적인 효과는 이성교제나 부부관계가 항상 낭만적일 수는 없으며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면접대상자들이 인식했다는 점이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성교제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강현주의 이야기이다.

워크북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만 나를 대해주면 참 잘 지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걸 알았어요. (강현주, 사후면접)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를 인정하고, 차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남녀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요구도 조사 및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소집단 형식의 단기과정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과 교육매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평가는 질문지 조사와 면접을 병행하였다. 평가 결과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및 교육방식 등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성교제에서 나타나는 남녀차이를 이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남녀차이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이성교제에서 애정과 친밀감을 발전·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형제자매와 친구, 선후배 등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보탬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보완과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나눔의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지를 통한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참가자들은 소집단 나눔 시간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사후면접에서 역시 소집단 나눔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동성집단 내의 소집단 나눔보다는 이성집단과의 소집단 나눔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구성된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집단 나눔을 확충하는 것은 비디오 시청이나 사례 연구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다른 활동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횟수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데, 교육 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의 횟수를 4회 또는 5회로 연장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으므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집단을 동질화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현재 교제 중인 커플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성교제 경험 유무에 따라 이성교제 준비 프로그램과 이성교제 유경험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내용을 참가자의 개인적 특징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교양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학내에서 꾸준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이성교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가자 모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이 프로그램은 남녀차이라는 세부주제를 다룸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요구도 조사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을 토대로 한 관계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남녀차이만 강조된 반면 성격유형의 차이 등 개인 특성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남녀차이가 이성교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다 장기간의 교육이 가능하다면 원만한 이성교제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섯째, 이성교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성교제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대한 탐색이 요구되며, 이성교제 중인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나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인 이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 및 미혼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교제 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제언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진다면 이 프로그

램이 지닌 장점과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31일

### 【참고문헌】

- 공미혜(2001).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이기숙·공미혜·김득성·김은경·손태홍·오경희·전영주. 결혼의 기술(61-84). 서울: 학지사.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135-170.
- 옥선화·정민자·고선주(2000). 결혼과 가족(개정판). 서울: 하우.
- 유영주·김경신·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Arcus, M. E. & Thomas, J.(1993). 가족생활교육의 본질과 실제. In Arcus, M. E., Schvaneveldt, J. D. Moss, J. J.(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Vol. 2): the practice of family life education*. 이정연·장진경·정혜정 역(1996). 가족생활교육의 실제(1-48). 서울: 하우.
- Giddens, A.(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황정미·배은경 역(1996).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서울: 새물결.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허완주 역(1997). 다른 목소리로. 서울: 농蹊.
- Gottman, J. M. & Silver, N.(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and Work*. 임주현 역(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문학사상사.
- Gray, J.(1992).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김경숙 역(1993).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 친구미디어.
- Maccoby, E. E. & Jacklin, C. N.(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rrott, L. & Parrott, L.(1995). *Saving your Marriage Before It Starts*.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Schwartz, M. A. & Scott, B. M.(1997). *Marriages & Families: diversity and change*(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Hall.
- S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ed.). 송진연·김수정·이지연·양돈규 역(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hehan, C. L. & Kammeyer, K. C. W.(1997). *Marriages & Families: reflections of a gendered society*.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tahmann, R. F. & Salts, C. J.(1993). 결혼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교육. In Arcus, M. E., Schvaneveldt, J. D. Moss, J. J.(Eds.).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Vol. 2): the practice of family life education*. 이정연·장진경·정혜정 역(1996). 가족생활교육의 실제(49-94). 서울: 하우.
- Tannen, D.(1991). *You Just Don't Understand*. 정명진 역(2001).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서울: 한언.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